

 헤럴드경제

농어촌공사 제53회 중앙운영대의원회 개최

입력 2022.06.29. 오후 1:57

[헤럴드경제(빛가람혁신도시)=김경민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9일 나주 본사 무궁화1실에서 ‘제53회 중앙운영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제10기 신임 중앙운영대의원 14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중앙운영대의원회는 농업인의 참여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구성되는 제10기 중앙운영대의원은 농업인의 대표성을 강화해, 지역 현안과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농업인 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위촉했다.

제10기 중앙운영대의원으로 위촉된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 한국농업경영인 이학구 회장 등은 이날 회의에서 공사 주요업무, 통합 물관리 추진 관련 공사의 역할과 대응 방안 등의 설명을 듣고, 공사 경영진과 공사 현안에 대한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농어촌이 직면한 위기를 이겨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사가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호 사장은 “중앙정책과 지역농정의 요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앙운영대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공사가 능동적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민 kkm9971@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09209>

